

일본출장(도쿄, 오사카, 히로시마) 결과보고

I 개 요

출장 개요

- 기 간 : 2024. 1. 26.(금) ~ 1. 29.(월)
- 장 소 : 일본 도쿄都, 오사카府, 히로시마縣
- 출 장 자 : 박영서 도의회 부의장*, 도지사, 교육감 등 14명
* 수행 : 행정6급 김덕환
- 주요내용 : 도민회 신년회 참석 및 히로시마현 방문

주요 내용

- 도쿄 및 오사카도민회 신년회 참석
- 일본 해외자문위원초청 만찬 간담회
- 히로시마현 방문 및 우호교류의향서 체결

주요 일정

일 자	지 역	주 요 일 정	비고
1.26. (금)	대구 도쿄	◇ 출국(대구/11:10 → 나리타/13:20) ◇ <u>해외자문위원 초청 만찬간담회</u>	티웨이
1.27. (토)	도쿄 오사카	◇ <u>도쿄도민회 신년회(13:00)</u> ◇ 이동(도쿄 → 오사카)	신간선
1.28. (일)	오사카 히로시마	◇ <u>오사카도민회 신년회(17:00)</u> ◇ 이동(오사카 → 히로시마)	신간선
1.29. (월)	히로시마 인천	◇ <u>히로시마현 및 의회 방문, 교류의향서 체결</u> ◇ 입국(히로시마/16:30 → 인천/18:40)	제주항공

II 주요 내용

도쿄도민회 신년회

- 일 시 : 2024. 1. 27.(토) 13:00 ~ 15:00
- 장 소 : 게이오프라자호텔 남관 4F 錦(니시키)
- 참 석 : 160명 정도
- 식 순 : 국민의례, 축사, 내빈소개, 기념품(감사패)전달, 오찬
- 주요 참석자

- 최용일 신임 도쿄도민회장, 천병승 전 도쿄도민회장, 장상덕 도쿄도민회 상임고문
김정자 도쿄도민회 부인회장, 이수원 재일본민단 도쿄본부 단장
오영석, 김인숙 부회장
- 김순차 도쿄한국상공회의소 회장, 육종문 재일본한국인연합회 회장
- 광복남 치바도민회장, 서옥출 카나가와 도민회장, 차득용 효고도민회장
- 김옥채 駐 요코하마총영사관 총영사 등

※단체기념품 : 생강청 스틱(130개), 감사패 : 천병승 전 도쿄도민회장

○ 부의장 축사내용

- 도쿄에서 경북인 특유의 끈기와 집념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개척해 나가시는 교민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 멀리 타국에서 모국을 향한 따뜻한 마음에 감사, 앞으로도 서로 긴밀한 연대를 구축하여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랍니다
- 갑진년 새해에는 용감하고 힘센 청룡처럼 어렵고 힘든 일 모두 이겨 내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길 기원드립니다



오사카도민회 신년회

- 일 시 : 2024. 1. 28.(일) 17:00 ~ 19:00
- 장 소 : 대성각(중화요리 식당) 4F
- 참 석 : 130명 정도
- 식 순 : 국민의례, 축사, 내빈소개, 기념품(감사패)전달, 만찬
- 주요 참석자

- 정홍 오사카도민회장, 김기주, 박재길 오사카도민회 상임고문, 김일룡 부회장
- 최용일 신임도쿄도민회 회장, 박의순 교토도민회장, 차득용 효고도민회장 등
- 전홍배 오사카 해외자문위원, 김상준 긴키대학 교수
- 김형준 주오사카총영사관 총영사 등

※ 단체기념품 : 생강청 스틱(110개), 감사패 : 김기주 상임고문, 김일희 고문

○ 부의장 축사내용

- 갑진년 새해를 맞아 오사카의 경북 도민들과 신년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
- 현재 우리 교민 여러분들은 일본의 장기적인 경제침체에 더하여 엔저와 고물가의 영향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생각됨
- 갑진년 용감하고 힘센 청룡의 기운과 경북인 특유의 서릿발 같은 기개와 선비정신으로 어려움을 잘 헤쳐 나갈 것이라 굳게 믿음

히로시마현 지사 면담

○ 일 시 : 2024. 1. 29.(월) 09:00 ~ 09:45

○ 장 소 : 히로시마현청

○ 주요 참석자

- 유자키 히데히코 지사, 임시홍 주히로시마대한민국총영사관 총영사
- 스기야마 료이치 지역정책국장, 쿠리하라 아유미 국제평화담당부장
- 오키다 타케시 국제과장,

○ 식 순 : 인사말씀, 우호교류희향서 체결, 기념품교환 및 기념촬영

※기념품 : 캐자(히로시마현 지사), 홍삼스틱

○ 환담내용

【박영서 부의장】

- 히로시마현은 1945년 원폭 피해를 입고 새롭게 부활하여 현재는 평화를 상징하는 도시로 성장하였음
-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살기좋은 도시로 평가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한일은 이웃 국가로서 더욱 상생하며 살아가야 할 국가임
-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온 교류 이외에도 경제, 문화, 인적교류가 더욱 발전되기를 희망

【히로시마현 지사】

- 히로시마현은 한국과 지리적, 역사적으로 깊은 인연이 있으며 지금까지 인적, 교육, 경제, 관광 등 폭넓은 분야의 교류 추진
- 경북과는 2020년에 주히로시마 대한민국총영사관에서 한국의 자치 단체와 교류에 대한 제안을 수용, 이후 경북과 교류를 추진해 옴
- 교육분야 : 영남대학교에 장기 어학연수생 수용 및 체재비 등 지원에 감사
- 청소년분야 : 국내외 고교생을 히로시마에 초청하는 「히로시마주니어 국제포럼」에 2022년 이후, 매년 경북에서 고교생이 참가하고 있음
 - 이외, 양 도현 청소년이 지난 10월부터 5~6명씩 고교생 상호교류를 추진하고 있음
- 직원교류 : 지금까지 온라인교류 추진, 작년 6월 경북에서 히로시마 방문, 10월에는 히로시마 국제과장 경북 방문 등 업무협의를 진행해 옴
- 지사교류 : 향후, 귀도 방문시 이철우 도지사와 황토길을 걸으며 교류를 심화시키기를 희망
 - 금일, 양 도현의 우호교류의향서 체결을 계기로 현대 조선통신사 사절단과 같은 한일교류의 거점이 되길 기대함

히로시마현 의회 의장 면담

○ 일 시 : 2024. 1. 29.(월) 10:00 ~ 10:30

○ 장 소 : 히로시마현 의회

○ 주요 참석자

- 나카모토 타카시 의회의장, 오가타 나오키 부의장
일한 우호의원연맹 부회장 등 5명
- 임시홍 주히로시마대한민국총영사관 총영사

○ 식 순 : 인사말씀, 기념품 교환 및 기념촬영

※기념품 : 껌자(히로시마현의회 의장), 홍삼스틱

○ 환담내용

【박영서 부의장】

- 경상북도와 히로시마현은 인구가 비슷할 뿐만 아니라 문화유산과 관광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공통점도 갖고 있음
- 금일 양 도-현간 우호교류의향서 체결이 이루어졌듯이, 앞으로 의회 차원에서도 상시 연락을 유지하며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지속적 소통 필요
- 경상북도의회와 히로시마현 의회의 협력과 더불어, 대한민국과 일본의 협력과 발전을 기대

【히로시마현의회 의장】

- 한국은 일본의 이웃국가로 역사적·문화적·경제적인 면에서 다양한 교류가 이루어져 왔음
 - 히로시마현도 한국과 지리적, 역사적인 관련성을 이유로 지금까지 교육, 경제, 관광 등 폭넓은 분야에서 교류를 추진해 옴
- 히로시마현 의회는 1998년에 일한우호촉진의원간담회를 결성
이후 駐히로시마대한민국총영사관 및 일한친선협회와 한국방문을 통한 상호교류 촉진
- 금일, 경북과 히로시마현간에 양 지역의 교류를 심화해 가자는 것을
명기한 「우호교류의향서」 체결에 매우 기쁘게 생각함
- 히로시마현 의회차원에서 향후, 경상북도 의회와 교류를 심화시켜
양 지자체의 우호관계가 더욱 강화해 나가는데 기여해 가고자 함

히로시마현지사 및 의장 오찬간담회

- 일 시 : 2024. 1. 29.(월) 12:00 ~ 13:00
- 장 소 : 리가 로얄호텔
- 주요 참석자
 - 유자키 히데히코 지사, 스기야마 료이치 지역정책국장
 - 나카모토 타카시 의회의장, 오가타 나오키 부의장
일한 우호의원연맹 부회장 등 5명
 - 임시홍 주히로시마대한민국총영사관 총영사

III 주요 사진 및 신문스크랩



도쿄도민회 신년회



故 이수현 헌화



히로시마현 지사 및 의장 면담



히로시마현 지사 및 의장 면담



히로시마현 의회 방문



히로시마현과 우호교류의향서 체결

경북도, 日 시마네현과 20년 만에 교류물꼬 튼다

지방외교·도민회 참석차 방문
해외거주인적네트워크강화
히로시마현과상생발전협약
지방정부간 우호교류 재점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도쿄와 오사카 지역의 경북도민회 신년회 참석차 히로시마현 교류를 위해 28일부터 29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했다.

이번 일본 출장에는 박영서 도의회 부의장과 임종식 교육감도 동행해 도민들을 격려하고 한일 지방정부간 교류에 힘을 보탠다.

30일 일본에 도착한 이 지사는 경북의 민간외교에 앞장서는 해외자문위원(조국재 자문위원 등 3명)을 만나 환담하고 업무 방향과 자원방안 등을 논의한다.

27일은 도쿄도민회(회장 최용원), 28일은 오사카도민회(회장 정훈) 신



이철우 도지사(오른쪽에서 두번째)와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박영서 경북도의회 부의장(왼쪽)은 28일 도쿄도민회 신년회에서 전 도쿄도민회장으로 부터 기념품을 전달받았다.

년회에 참석해 도민을 격려하고 교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상북도 해외도민회는 일본 7개

도민회를 비롯하여 미국(12개), 호주, 독일, 영국, 인도네시아, 태국 등 7개국 14개가 설립돼 있다.

해외도민회는 경북도 국내외 행사와 수출통상 협력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등 해외 인적네트워크의 중추적

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이 지사는 한류와 K-FOOD의 열풍이 확산하는 한류 발상지인 도쿄 신오구부 거리와 한인 매장(화장품도 매상)을 방문해 일본 소비자 반응과 경북제품의 일본 내 판로 가능성, 마케팅 전략을 청취하는 등 수출지원 및 판로확대에 대한 현황을 직접 살핀다.

29일은 일본 히로시마현과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해 2005년 시마네현과 자매결연을 파기한 이래 일본 지방정부와 다시 교류 협약의 물꼬를 틀 계획이다.

이 지사는 "지난해 경북이 호우와 산사태로 피해를 보았을 때 청금을 보내오는 등 고향사랑에 앞장서는 일본의 경북도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와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히로시마현과 교류 협약을 체결해 관광객 유치와 경북 우수상품 수출의 기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서연교 기자

대구신문

2024년 01월 30일 화요일 020면 사람들

“한일 지방정부간 우호교류 증진 힘쓸 것”

경북도, 日 히로시마현 방문
우호교류 의향서 체결·협력
李 지사 “관광객 유치 기대”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29일 히로시마현청을 방문해 양 도·현간 우호교류 의향서를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박영서 도의회 부의장 및 임종식 교육감도 동행, 양 도·현 의회와 교육청의 교류 추진을 확대하는 등 그동안 경색된 한일 외교 정상화를 위해 함께 노력했다.

우호 교류 의향서 체결은 지난해 11월 초 일본 야마나시현에서 열린 한일지사회의에 참석한 이 지사가 2020년부터 경상북도와 우호 교류를 제안한 히로시마현 지사와 만나 경색된 한일 지방정부간 교류 복원에 합의한 이후 이번 히로시마현을 방문으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경북도와 히로시마현의 우호교류의향서 체결식 장면. (왼쪽부터 박영서 경북도의회부의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유자기 히데히코 히로시마현 지사 임시흥 주히로시마총영사관 총영사)

그동안 양 도·현은 코로나19의 영향 속에서도 '히로시마 주니어 국제포럼', '대학생 여학연수' 등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해 왔다.

히로시마현은 경북도와 인구와 행정구역이 비슷한 공통점을 비롯 조선통신사를 통해 이미 오래전부터 교류의 역사가

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2024년에는 60년 만에 찾아온 청룡의 기운을 받아 한일 지방정부간 우호 교류 증진은 물론 한류문화 확산과 일본 관광객 유치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삼만기자 ksm@idaegu.co.kr